

보험회사 자체의 위험관리 강화가 중요한 과제

1. 위험관리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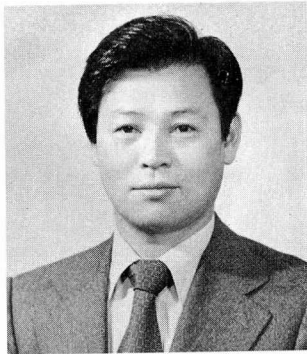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가 일반 산업체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 경영전반에 걸친 위험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이 희박한 현실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처럼 보험 가입의 동기가 위험관리방법의 하나인 전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기보다 용자와의 관련, 연고관계 기타 유형 무형의 요인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손보업계의 위험관리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 즉 위험관리적 측면에서 일반산업체를 지도 계몽해서 사후 대비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보험의 공급을 촉진케 하고, 또 계속해서 가입자에 대한 방재지도를 함으로써 보험요율을 경감시키는 善循環策으로 위험관리제도가 이용되어야 함에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자체의 위험관리 실태도 불충분해서 손해율의 고등, 경비율의 증가와 이로 인한 수익악화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2. 문제점

우리나라의 위험관리수준이 극히 낮은 수준임에도 그 관리기법의 도입은 점차 활발해 지고 있어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되기



이 승 환
(대한재보험(주)·상무이사)

때문에 근본적인 초기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수준의 현실과 도입기술과의 괴리현상이다. 우리가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외국제도의 모방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의 문제점은 이론만의 성급한 확대로 오는 부작용이다. 즉 손보업계의 수용태세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졸속화하면 실무와의 연계성을 상실

하기 쉽다.

3. 문제점에 대한 대책

첫째 문제점인 우리나라 실정과의 괴리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기반시설이 구축되도록 하는 일이다. 즉 법제면, 산업체의 위험관리사상 그리고 손보업계의 추진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번 문제점이 되는 실무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soft ware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4. 세부추진방안

이상과 같은 기본대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효율화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6

재해발생의 빈도를 감소시킬수 있는 안전공학의 연구는
부차적이라해도 중요성만큼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업계의 위험관리 전담인력을
안전공학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99

(1) 위험관리제도의 post-loss방법으로서 보험service의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위험관리수준이 높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요율의 저렴한 공급이다. 현재에도 각종 할인요율이 존재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지도한 위험관리 제도의 등급에 따라 정도에 알맞은 요율체계의 신설이 요망된다.

둘째 부보동기를 위험관리방법에 두도록 유도하는 보험회사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보험가입의 동기가 응자나 연고 등으로 성립된다면 보험시장의 깊이있는 개척은 어렵기 때문이다.

세째 종합적으로는 요율체계가 merit system에 비중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는것이 소망스럽다 하겠다. 즉 위험관리의 양부에 따라 할인·할증을 명백하게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위험관리 체제가 조기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전문가에 의한 위험관리지식의 부단한 보급이다. 즉 pre-loss 방법을 광범위하게 전파함으로써 안전관리와 방재의식이 정착되도록 선도하는 일이다.

첫째 각종 방재지도와 기자재의 보급을 적극화한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부설된 방재시험소의 기술축적을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학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각종 재해위험을 비용화해서 이를 인수하는 보험회사로서는 재해발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공학의 연구는 부차적이라 해도 중요성만큼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업계의 위험관리전담인력을 안전 공학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전문인의 양성과 know-how의 축적이 있어야 미국의「UL」마크로 유명한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와 같은 방재전문기관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안전관리개념이나 방재인식은 일반산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대중에게도 널리 침투되어야 하므로 판매조직을 통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3) 보험회사 자체의 위험관리 강화가 긴요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즉 우리나라 손보업계는 과당경쟁의 여파로 손해율의 악화, 경비율의 고등으로 보험경영 전반에 걸쳐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산업의 위험관리를 지도하고 또 보험으로 그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자가 자체 위험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면 어불성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이 급선무라 하겠다.

첫째 underwriting체제의 확립을 통한 계약인수업무의 개선을 달성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underwriting부재의 영업활동은 손보시장자체를 붕괴 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loss control을 통한 사정기법의 향상을 기하는 일이다. 즉 손해율의 적정화는 인수기법과 손해사정 기법의 합리화 이외에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 보유와 재보험기술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경영의 내실화는 양질물건의 보유중대에 있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이 분야의 기술 축적을 서둘러야 한다.

네째 자산운용의 효율화로 보험자산의 증식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금의 운용이율을 도외시한 영업활동과의 연계는 지양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하겠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업계가 각자 나름대로 위험관리체계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추진방향의 齎合性이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동의 연구기관을 마련하여 단시일 내에 위험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사의 시행착오는 모아져서 검토가 될 때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